

작은집들이 모인 아이들 마을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김지혜
이영선

봄도시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57-7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대지면적	805m ²
건축면적	191.9m ²
연면적	191.9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5m
건폐율	23.84%
용적률	23.84%
구조	철근콘크리트 줄기초, 경량목구조
설계	김지혜 이영선
시공	THE Mhaus
설계기간	2016.5.~2016.7.
시공기간	2016.9.~2016.11.
건축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중부지부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세 줄으로 나뉘어
마치 세 채의
강물처럼 보이는 모습

도시 농촌 어디서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도시 내, 또 농어촌 마을 내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활동실과
연결되는
다목적 홀



© 정호재



© 정호재



© 정호재

상
하

단차를 이용해 단조로움을 탈피한 내부공간
계단서재



◎ 08 10 12



◎ 08 10 12



◎ 08 10 12

상
하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가운데로 배치된 사무실
식당·집단 활동실2



작은 집들이 모여 만들어진 듯한 공간의 모습

최근 주민참여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주택이 아니라 여러명이 사용하게 되는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설의 사용자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다.



© 홍성 꿈드림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어린이들은 보호받으면서 놀 권리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는 농어촌 아동들이 방과 후에 보호받으면서 놀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아동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농어촌 놀이터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도시 내 공간 부족’에 대해 고민하며, 어린이 공공시설 및 도시 내 보행 환경 연구를 해 오고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우리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측에서 요구한 프로그램은 29명의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는 60평 내외의 지역아동센터 실내 공간과 외부 놀이시설이었다. 특히 설계 과정에서 아동 워크숍과 성인 워크숍을 각각 2번씩 진행한 다음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아동 워크숍과 성인 워크숍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워크숍은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누가 사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동 워크숍은 지역아동센터 예정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의 저학년과 고학년 각각 한 학급씩을 대상으로 진행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홍성군 광천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워크숍을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하였다. 준비와 진행은 건축가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 만큼 미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이유는 워크숍이 단순히 아이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개별작업으로 나무집에 폼클레이나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함께하는 집을 만들어 보았다. 두 번째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서 만든 집들을 모아 함께하는 마을과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작업을 모둠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황효철



상 홍성 폼드립 지역아동센터 전경
하 세 동으로 나뉘어 마치 세 개의 건물처럼 보이는 모습



©볼도시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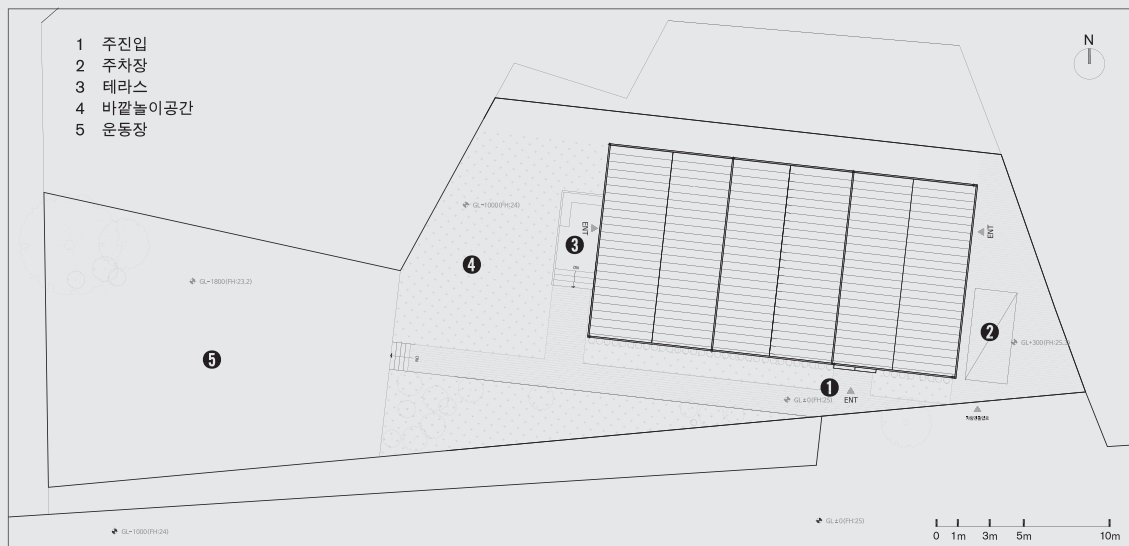


어린이 워크숍에서
아이들이 만든 '함께하는 집'의 모습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워크숍 활동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작과 정리 시간을 짜임새 있게 꾸려 아이들이 워크숍 활동을 자기만의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낯설고 수줍어하면서 조심스럽게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진행자들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으며,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다음 번 워크숍이 언제인지 묻는다면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미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다니는 아이도 있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외부 활동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내부 공간에 관해서는 소파나 다락방 등 아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인 워크숍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광천읍은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고, 주변 면 단위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등의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맞벌이 가정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워크숍 시간을 저녁 6시 30분 이후로 잡았으나 홍보한 것에 비해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다. 대신 광천읍과 주변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해



배치도

주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특성과 공간 사용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집단 활동실과 주방에 대한 조언부터 기존 시설에서 아쉬운 점 등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별도의 식당 공간에 대한 요구, 창고 설치, 상담실을 작은 음악교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실과 분리해 달라는 부분 등은 실제로 설계에 반영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아이들을 관찰해 온 선생님들의 운영철학과 운영자로서의 어려움 등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것이 이 공간을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센터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 말을 떠올렸다.

2차 성인 워크숍에서는 1차 설계안을 준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 워크숍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선생님들 20여 분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경험미가 있는 도움말에 따라 식수대 설치,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의 관계, 세면대와 화장실 배치 등을 수정하였다.

아늑한, 작은 집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

워크숍과 건축주와의 미팅, 기존 지역아동센터 시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설계에서 중점을 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아동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적 배려를 하고자 하였다. 집단 활동실과 다목적 홀을 각각 하나의 동으로 만들고 동과 동 사이에는 개별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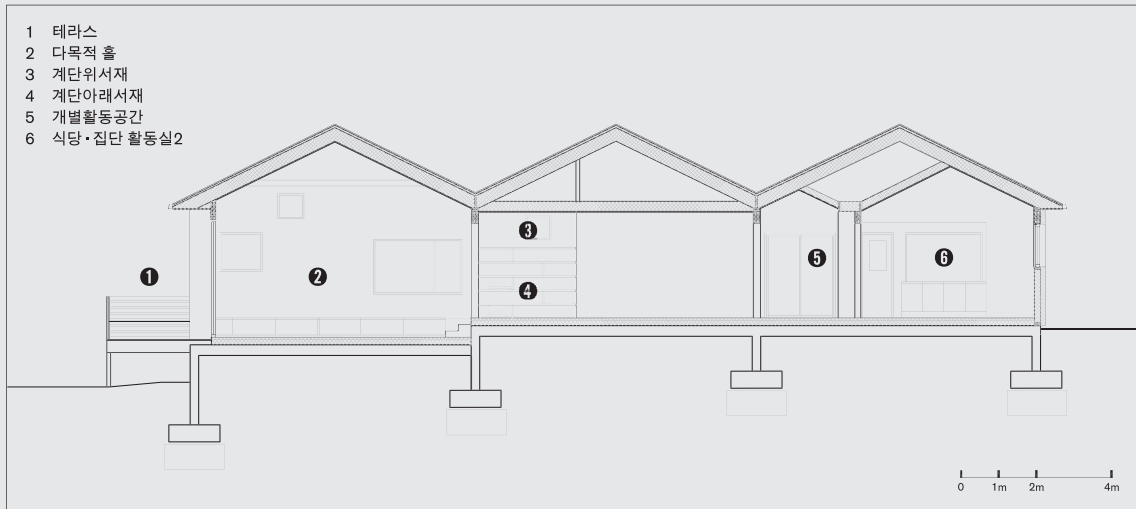
대상지는 기존에 목초지로 사용하던 부지였으며, 두 개의 필지를 합하여 물고기와 같은 형태이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아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다. 오후 놀이시간에 그들이 지지 않도록 서쪽 부지를 놀이공간으로 설정하고, 부지의 동쪽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부지 주변은 과수원과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고, 근처에 아파트 몇 동이 있는 것 말고는 한적한 곳이다. 60여 평을 세 동으로 나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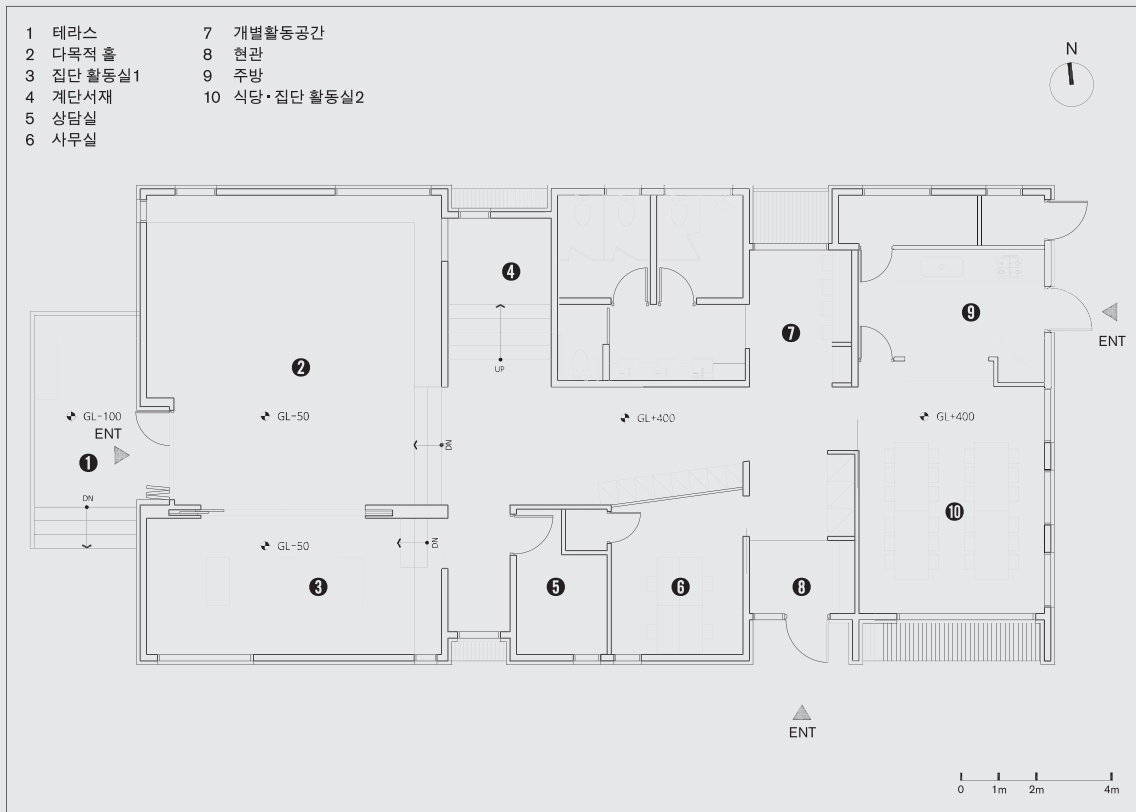
© 황효철



상 집단 활동실과 연결되는
다목적 홀
하 작은 집들이 모여 만들어진 듯한
공간의 모습



단면도



평면도

마치 세 채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내부 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눈 것이기도 하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큰 실을 양끝에 배치하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가운데 두었다. 활동 공간이 각각 작은 집처럼 느껴지도록 하였고, 센터의 느낌보다는 커다란 집 혹은 작은 집들이 모인 것과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각동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는 여유공간을 두어 개별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공간의 층고와 높이를 다양하게 하여 공간적으로 단조롭지 않게 하였고, 조명도 이에 맞추어 다르게 설계하였다.

진행 중에 설계 변경된 것과 아쉬운 점

성인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가장 많이 토론하고 고민한 두 가지는 다목적 홀·사무실·식당 및 집단 활동실의 배치와 다목적 홀의 단차 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입구 쪽에 다목적 홀이 있고 이와 연결되어 활동실이 있는 형태인데, 이 경우 다목적 홀의 활동이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을 양끝에 배치하였다. 이런 배치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다. 결국 몇 번의 설계변경 끝에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 겸 식당이 현관 홀을 중심으로 양끝으로 위치하는, 현재와 같은 배치를 확정지었다.

또 시설 내 공간 사이의 단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서측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다목적 홀과 외부놀이공간이 대지의 조건상 단차가 1m 이상 생기게 되는데, 이 단차를 줄이고 내부공간을 단조롭지 않으면서 좀 더 아늑하고 밝은 공간을 만들고자 다목적 홀의 바닥을 다른 실보다 50cm가량 낮게 설계하였다. 계단 세 개 정도의 높이였으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단차를 두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조금은 다른 시도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단차를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결과적으로 더 흥미로운 내부공간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것은 대지를 남측 도로 높이와 맞추기 위해 대지 전체를 평균 1~2m 성토하였는데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는 바람에 외부 놀이시설에 많은 비용을 쓸 수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센터장들이 얘기하였듯이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거창한 시설보다 그저 뛰어놀 공간, 함께 공놀이를

◎형조실



상 단차를 이용해 단조로움을 탈피한 내부공간
하 계단서재



© 황효철



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가운데로 배치된 사무실
하 식당·집단 활동실2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한 것보다 어린이들 스스로 놀이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 설계

최근 주민참여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설의 사용자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주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설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칫 설계에 쓰일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그 대상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의 경우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두 번의 아동 워크숍에서 미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 지켜야 할 것과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워크숍 대상인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설을 직접 이용할 이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모든 예상 이용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실제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상지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적인 의견만을 수렴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더 많아져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디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주거지에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공원 등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지역 내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